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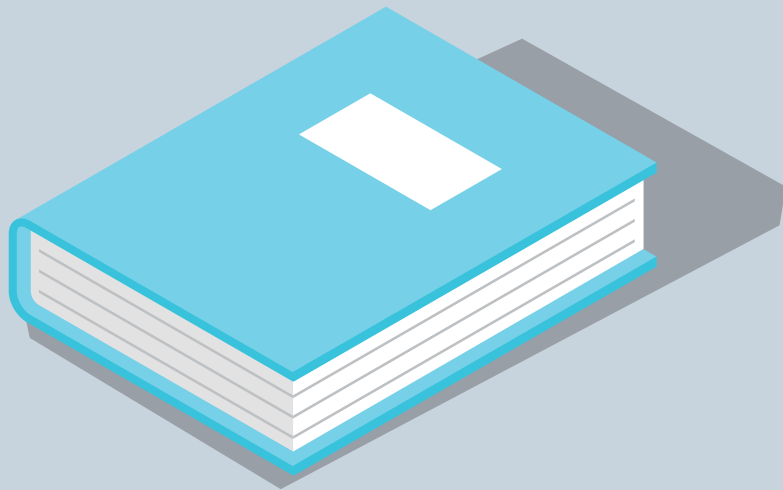
세상을 이해하는 명언, 잠언, 속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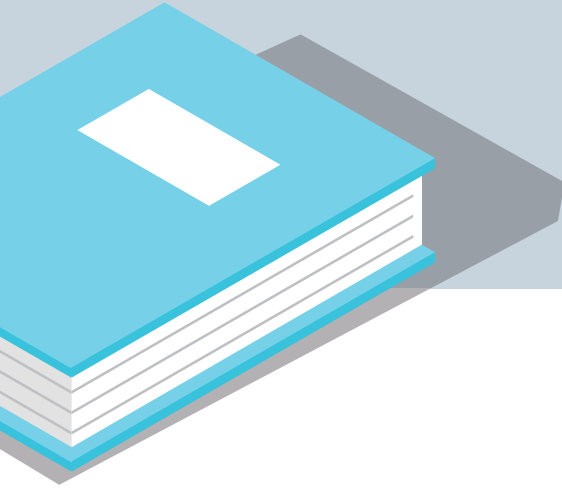
명언



다양한 주제에 대한 명언, 잠언, 속언

명언





다양한 주제에 대한 명언

- 궁지에 몰린 쥐 고양이를 문다.

<환관, 「염철론」, 미상~미상>

- 말 꼬리에 매달린 파리

<범엽, 「후한서」, 398~445>

- 위도가 세 번 바뀌면 모든 법률이 뒤집혀진다. 자오선이 진리를 결정한다.

<파스칼, 「」, 1623~1662>

- 새도 고통스러우면 수레를 뒤엎는다.

<사마천, 「사기」, BC 145~BC 86>

- 재주가 없으면 힘이 없다.

<나폴레옹 1세, 「금언과 성찰」, 1769~1821>

- 주정뱅이 다치는 법 없다.

<장자, 「」, BC 369~ BC 289>

- 모든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다.

<폴클로델, 「교환」, 1868~1955>

- 다 벗은 자를 뒤질 수 없다.

<플라우투스, 「당나귀」, BC 254~BC 184>

- 몸이 아니라 의지로 난봉꾼이 된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」, BC 85~BC 43>

- 새 옷보다 오래된 누더기 옷이 더 잘 탄다.

<G.C. 리히텐베르크, 「」, 1742~1799>

- 반감보다 빨리 생기는 감정은 없다.

<A. 뮌세, 「세기아의 고백」, 1810~1857>

- 호기심은 질투에서 태어난다.

<몰리에르, 「나바르의동 가르시」, 1622~1673>

- 현재가 미래를 낳는다.

<볼테르, 「철학사전」, 1694~1778>

- 호기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거나 할 수 있는 정확한 순간이다.

<플라톤, 「정의」, 1754~1824>

- 현재는 강력한 여신이다.

<괴테, 「타소」, 1749~1832>

- 예민해지는 것보다는 미치는 것이 낫다.

<안티스테네스, 「」, BC 445~BC 365>

- 두려움이 깨어 있지 않으면 두려워하던 것이 닥친다.

<푸블리우스시루스,「」,BC 85~BC 43>

- 아폴론이 항상 활시위를 당기는 것은 아니다.

<호라티우스,「송시」, BC 65~BC 8>

- 일을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십시오.

<G.허버트,「명궁」,1593~1633>

- 정상은 바람이 휩쓸어버린다.

<오비디우스,「」,BC 43~ AD 17>

- 소들이 둘씩 짝지어 가면 밭갈이가 더 잘된다.

<미셸스텐,「변화하는 희곡, 콩트」,1719~1797>

- 휴식은 죽은 이들에게 좋은 것이다.

<Th.칼라일,「일기」,1795~1881>

- 레이스를 갖기에 앞서 블라우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듯,
너그럽기에 앞서 의로워야 한다.

<샹포르,「금언과 성찰」,1741~1794>

- 웃음이 분노보다 가치있다.

<에밀파게,「」,1847~1916>

- 힘의 특성은 보호하는 데에 있다.

<파스칼,「팡세」,1623~1662>

- 결백조차도 때로는 가면이 필요하다.

<폴러,「」,1810~1850>

-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.

<피롱,「」,1689~1773>

- 불필요한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.

<볼테르,「풍자시집」,1694~1778>

- 힘(실력)은 필요 옆에 산다.

<피타고라스,「황금시」,BC 580~BC 500>

- 아침에 웃고, 저녁에 목 매달린다.

<볼테르,「샤를로 혹은 지브리 백작부인」,1694~1778>

- 피해자가 한탄하면 금방 복수하는 자가 나타난다.

<아이스킬로스,「제주를 바치는 여인들」,B.C. 525~B.C. 456>

- 재주는 필요성 앞에서 약해진다.

<아이스킬로스,「포박된 프로메테우스」,B.C. 525~B.C. 456>

- 사막의 힌두교도들이 물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다.

<괴테,「잠언과 성찰」,1749~1832>

- 나무는 다른 나무와 섞여 있을 때 더 잘 탄다.

<사아디,「장미정원」,1184~1292>

- 경험자가 점쟁이보다 훨씬 더 잘 안다.

<파이드루스,「」,BC 15~AD 50>

- 역경의 시기에 행복을 추억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.

<단테,「신곡」,1265~1321>

- 마음에 남은 얼룩보다 얼굴에 남긴 모욕이 낫다.

<미겔 데 세르반테스,「돈키호테」,1547~1616>

- 고요함은 노년에 마시는 우유이다.

<제퍼슨,「」,1743~1826>

- 말이 없는 고통은 그만큼 더욱 불길하다.

<라신,「앙드로마크」,1639~1699>

- 한숨은 마음의 언어이다.

<Th.새드웰,「프시케」,1942~1692>

- 발톱으로 호랑이를 알아본다.

<알카이오스,「단편집」,BC 620~BC 580>

- 지문으로 헤라클레스를 알아본다.

<헤로도토스,「역사」,미상~미상>

- 나뭇단들과 나뭇단들이 있다.

<몰리에르,「역지 의사」,1622~1673>

- 마지막에 들어온 주자도 1등으로 들어온 주자와 마찬가지로 승리한 것이다.

<아이스킬로스, 「아가멤논」, B.C. 525~B.C. 456>

- 인간에게 권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없다.

<파스칼, 「」, 1623~1662>

- 불길한 걱정은 말에 올라탄 기사의 뒤에 있다.

<호라티우스, 「」, BC 65~BC 8>

- 꿀벌은 꽃들을 여기저기 훑아 다니며 자신의 것으로 삼은 뒤에 그것으로 꿀을 만든다.

<몽테뉴, 「수상록」, 1533~1592>

- 꿀도 싫증이 날 수 있다.

<편다로스, 「네메아 찬가」, BC 517~ BC 438>

- 디오니소스와 아프로디테는 친하고 잘 어울린다.

<아리스토텔레스, 「문제들」, BC 384~BC 322>

- 승진할 때는 아무리 빨리 승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.

<키노, 「롤랑드」, 1645~1711>

- 단 한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은 많은 모욕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.

<벤존슨, 「세야누스의 추락」, 1572~1637>

- 자연은 그 어떤 것도 대등하게 만들지 않았다. 그 최고의 법은 종속과 독립이다.

<보브나르그, 「성찰과 잠언」, 1715~1747>

- 덕에도 한계가 필요하다.

<몽테스키외,「」,1689~1755>

- 댛을 놓는 방법을 아는 자는 댛을 피하는 방법은 모른다.

<시루스,「」,BC 85~BC 43>

- 편견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서는 양식으로 통한다.

<엘베시우스,「금언과 성찰」,1715~1771>

-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로운 것들은 독창성의 열매이다.

<존스튜어트밀,「자유론」,1806~1873>

- 편지는 글로 된 대화이다.

<발타자르그라시안,「지혜의 기술」,1601~1658>

-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한,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.

<루카누스,「」,39~65>

- 종이가 말을 하고 혀는 침묵해야 한다.

<세르반테스,「돈키호테」,1547~1616>

- 개선 가능성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드러내는 능력이다.

<네케르부인,「잡문집」,1739~1794>

- 분별력 다음으로 이 세상에 드문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와 진주이다.

<라브뤼에르,「성격론」,1645~1696>

- 미소는 사회적 의무이다.

<스테판그셀, 「」, 1864~1932>

- 파렴치한은 자신의 일만 해결된다면 경멸도 감당한다.

<플라톤, 「정의」, 1754~1824>

- 판단에 오류만 없다면 기억력이 나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.

<괴테, 「잠언과 성찰」, 1749~1832>

- 금을 싣고 가는 당나귀는 울지 않는다.

<안토니오페레즈, 「」, 1540~1611>

- 별명이야말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논증이다.

<해즐릿, 「」, 1778~1830>

- 의사는 환자가 죽게 내버려두고, 돌팔이 의사는 환자를 죽인다.

<라브뤼에르, 「」, 1645~1696>

- 해가 저물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위대함을 안다.

<세네카, 「」, BC 4~65>

- 칭찬하는 질책이 있고, 헐뜯는 칭찬이 있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큰 소가 밭갈이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.

<바이프, 「훈계와 속담」, 1532~1589>

- 안영의 호구.

<안영, 「안자춘추」, 미상~BC 500>

- 칭송은 무시의 딸이다.

<슈발리에드메레, 「금언과 격언」, 1607~1684>

- 놀라운 것은 한 번 놀라우나 칭송받을 만한 것은 더더욱 칭송받는다.

<조셉주베르, 「사유, 잠언, 에세이」, 1754~1824>

- 사건들은 신들의 손 안에 있다.

<플라우투스, 「」, BC 254~BC 184>

- 우리는 침묵하는 자에게 반드시 침묵한다. 그에게 그의 침묵을 되돌려주는 것이다.

<프랜시스베이컨, 「학문의 권위와 진보」, 1561~1626>

- 침묵은 밤처럼 함정을 파놓는다.

<프랜시스베이컨, 「학문의 권위와 진보」, 1561~1626>

- 침묵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친구이다.

<공자, 「논어」, BC 551~BC 479>

- 산더미 같은 수식어구는 악의적인 칭찬이다. 사실을 있는 그대로 칭찬해야 한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양식과 좋은 안목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만큼의 차이가 있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자신의 취향을 갖기 위해서는 감수성이 풍부해야 한다.

<보브나르그, 「성찰과 잠언」, 1715~1747>

- 불행의 무게는 불행으로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.

<플로리앙, 「」, 1755~1794>

- 상상력은 영원한 봄날이다.

<프리드리히실러, 「」, 1759~1805>

- 천 개의 상상을 가진 자는 단 하나의 의견도 낼 수 없다.

<네케르부인, 「」, 1739~1794>

- 첫 느낌은 사람의 손 안에 있지 않다.

<세르반테스, 「돈키호테」, 1547~1616>

- 첫 마음의 움직임은 결코 죄가 아니다.

<코르네유, 「오라스」, 1606~1684>

- 우울은 천재의 몫.

<키케로, 「투스쿨룸에서의 담론」, BC 106~BC 43>

- 천재의 등불은 인생의 등불보다 더 빨리 타다.

<프리드리히실러, 「피에스코의 모반」, 1759~1805>

-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다.

<마키아벨리, 「」, 1469~1527>

- 취향에 있어서는 각자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.

<볼테르, 「조로아스터교도에 관한 역사적 비판적 견해」, 1694~1778>

- 우리는 꽤 잘하는 일을 늘 꽤 서둘러 한다.

<아우구스투스황제, 「」, B.C. 63~A.D. 14>

- 지성과 재능 사이에 전체와 부분의 조화가 있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폭풍우가 몰아칠 때 빌었던 소원은 고요함 속에 잊혀진다.

<풀러, 「」, 1810~1850>

- 말을 번복하고 상황에 따를 줄 아는 신중함은 통치의 기술에 속한다.

<보방, 「정치적 사유와 회상」, 1633~1707>

- 사람들이 선을 자주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여도 벌받지 않기 위함이다.

<라로슈푸코, 「」, 1613~1680>

- 당나귀의 발길질은 늙은 사자에게 간다.

<라퐁텐, 「우화」, 1621~1695>

- 총애는 사람을 대등한 이들보다 위에 놓으나 실총은 그들 아래에 놓는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죽은 이들은 늘 칭찬받는다.

<투키디데스, 「펠로폰네소스 전쟁사」, BC 460~BC 400>

- 신이 금빛 꿀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,
나는 무화과의 달콤함을 더 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.

<크세노폰, 「단편집」, BC 430~BC 355>

- 너그러움은 조언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이다.

<보브나르그, 「성찰과 잠언」, 1715~1747>

-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추방할 수 없다.

<오비디우스, 「흑해로부터의 편지」, BC 43~ AD 17>

- 지나간 고통을 회상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.

<에우리피데스, 「헬레네」, BC 484~BC 406>

- 로빈은 항상 자기의 피리 소리를 기억한다.

<데페리에, 「새로운 웃음거리와 즐거운 이야기」, 1500~1544>

- 천장의 독은 누의의 구멍으로써 무너질 수 있다.

<한비, 「한비자」, BC 280~BC 233>

- 성인 조각상이 살아있는 성인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.

<리히텐베르크, 「」, 1742~1799>

- 추문은 모욕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다.

<J.드라이든, 「미스터 림버햄」, 1631~1700>

- 받기를 기다리는 징벌은 더욱 끔찍해질 뿐이다.

<아이스킬로스, 「제주를 바치는 여인들」, B.C. 525~B.C. 456>

- 열매는 모두의 것이지만, 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.

<루소, 「」, 1712~1778>

- 수줍음은 필요로 할 때에는 생기지 않는다.

<호메로스, 「」, BC 800~BC 750>

- 높에 던져진 돌은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다.

<괴테, 「잠언과 성찰」, 1749~1832>

- 재능은 갈채에 불을 붙이지 못한다.

<오비디우스, 「흑해로부터의 편지」, BC 43~ AD 17>

- 갈채는 고귀한 영혼들에게는 자극제이나 나약한 영혼들에게는 최종 목적이다.

<C.C.콜튼, 「라콘 혹은 간단하게 많은 것을 말하기」, 1780~1832>

- 가장 밝히는 이는 언제나 주인이다.

<바이프, 「」, 1532~1589>

- 죽은 사자의 턱수염을 뽑지 마라.

<마르티알리스, 「풍자시집」, AD 40~ AD 104>

- 버릇의 치료법은 반대 버릇이다.

<에픽테토스, 「」, 50~135>

- 추방의 고통은 쓰라리다.

<셰익스피어, 「리처드 3세」, 1564~1616>

- 최고의 향기는 빵의 향기, 최고의 맛은 소금 것이며
최고의 사랑은 아이들의 사랑이다.

<G.허버트, 「명궁」, 1593~1633>

- 많은 날들이 요구하는 징벌을 어느 날이 가져다준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어린 가시나무는 가시부터 크다.

<「탈무드」, ~>

- 여행 중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문턱을 넘는 일이다.

<마르쿠스테렌티우스바로, 「」, BC 116~BC 27>

- 초상화는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한다.

<마리보, 「시합」, 1688~1763>

- 인간은 옴벌레를 만들어 낼 줄 모르나 신들은 열두 개씩 만들어낸다.

<몽테뉴, 「」, 1533~1592>

-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의 초상화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.

<괴테, 「친화력」, 1749~1832>

- 초상화는 말 없는 입을 지녔다.

<니콜라스브레턴, 「잠언의 교차」, 1545~1626>

- 자기 직업이 없는 사람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.

<당쿠르, 「산초 판자」, 1661~1725>

- 천둥이 치면, 그 방향에 경의를 표하라.

<피타고라스, 「격언집」, BC 580~BC 500>

- 장미수로 혁명을 일으키지는 않는다.

<샹포르, 「금언과 성찰」, 1741~1794>

- 하루도 헤아려서 모자라고, 1년으로 헤아려서 나머지 있다.

<장자, 「」, BC 369~BC 289>

- 내가 보라색을 싫어함은 그것이 붉은 색을 어지럽힐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.

<맹자, 「맹자」, BC 372~BC 289>

- 저마다 자기 소매 안에 광인을 숨기고 있다.

<허버트, 「」, 1593~1633>

- 여가는 최고의 재산이다.

<소크라테스, 「」, BC 470~BC 399>

- 좋은 향기를 내는 것은 악취를 풍기는 것이다.

<몽테뉴, 「수상록」, 1533~1592>

- 다리가 내 정신을 흔들지 않으면,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.

<몽테뉴, 「수상록」, 1533~1592>

- 체념은 치유될 수 없는 모든 병의 고통을 덜어준다.

<호라티우스, 「송시」, BC 65~BC 8>

- 일이 지근하고 관련되는 바가 큰 것은 언어와 음식 이상의 것이 없다.

<주희,「근사록」,1130~1200>

- 사업은 사업이다.

<조지콜먼,「법적 상속인」,1762~1836>

- 벽에 난 구멍이 도둑을 유혹한다.

<「탈무드」,~>

- 스승을 위해 범하는 잘못은 덕행이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「격언집」,BC 85~BC 43>

- 모두가 발전에 대해 말하지만, 그 누구도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.

<에밀 드 지라르댕,「정치론」,1806~1881>

- 인간 세대들은 나무에 달린 나뭇잎들과 같다.

<호메로스,「일리아스」,BC 800~BC 750>

- 우리는 모두 세상에 갓 태어난 것 같은 기분으로 세상을 떠난다.

<에피쿠로스,「단편집」,BC 341~ BC 270>

- 네가 벌어 먹고살아야 한다.

<엄준,「노자지귀」,미상~미상>

-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나을 경우가 있다.

<플라우투스,「포로」,BC 254~BC 184>

- 지는 자가 이긴다.

<미셀스덴, 「변화하는 희곡, 콩트」, 1719~1797>

-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. 기회는 일시적이고, 경험은 기만적이며, 판단은 어렵다.

<히포크라테스, 「격언집」, BC 460~BC 377>

- 덕이 있고 행복한 사람은 공공재산이다.

<메난드로스, 「단편집」, BC 342~BC 291>

- 사람 수만큼 많은 의견이 있다.

<티렌티우스아페르, 「포르미오」, BC 185~BC 159>

- 다양하지 못한 의견은 좋지 않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만인보다 한 사람이 혼자 양식을 지니고 있을 때가 많다.

<파이드루스, 「우화집」, BC 15~AD 50>

-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의견을 지닌 사람들만이 양식을 지녔다고 생각한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의도가 죄의식과 범죄는 낳는다.

<아리스토텔레스, 「수사학」, BC 384~BC 322>

- 의지는 일어난 일로 널리 알려진다.

<앙투안루아젤, 「관례집」, 미상~1607>

- 예감은 있지만 눈에 보지 못하는 위험이 가장 불안하다.

<울리우스카이사르, 「갈리아 전기」, 1730~1809>

- 사소한 것이 우리를 위로한다. 사소한 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.

<파스칼, 「팡세」, 1623~1662>

- 동네에서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덕을 해치는 적이다.

<맹자, 「맹자」, BC 372~BC 289>

- 도덕을 조각으로만 지닌 사람들이 있는데, 이는 결코 옷이 되지 않는 옷감과 같다.

<조셉주베르, 「사유, 잠언, 에세이」, 1754~1824>

- 오래된 주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.

<Th.풀러, 「금언집」, 1654~1734>

- 원칙은 일반적인 관례 안에, 모든 사람의 눈앞에 있다.

<파스칼, 「팡세」, 1623~1662>

- 한 마디 말이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한다.

<공자, 「대학」, BC 551~BC 479>

- 작은 불티 하나가 숲을 불태우고도 남는다.

<포킬리데스, 「격언집」, BC 560~미상>

-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헛되이 보낸 날은 바로 우리가 전혀 웃지 않은 날이다.

<샹포르, 「금언과 성찰」, 1741~1794>

- 세상이 달라지면 일도 달라진다. 일이 달라지면 대비도 변한다.

<한비,「」,BC 280~BC • 233>

-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,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.

<알렉상드르 뒤마,「」,1802~1870>

- 먼 곳의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한다.

<한비,「한비자」,BC 280~BC 233>

- 이 세상에서 성공할 사람은 대명사의 구사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<존 헤이,「」,1838~1905>

- 나뭇잎 하나가 떨어짐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.

<유안,「회남자」,BC 179~ BC 122>

- 뜻을 세우고 공들이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과 다를 바 없다.

<왕수인,「전습록」,1472~1528>

- 모든 것이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좋고 인간의 손에 들어가면 나빠진다.

<루소,「」,1712~1778>

- 일수일확하는 것은 곡물이다. 일수십확하는 것은 나무이다.
일수백확하는 것은 사람이다.

<순자,「」,BC 298~ BC 238>

- 현을 보면 똑같기를 생각하고 불편을 보면 몰래 자기를 반성한다.

<공자,「논어」,BC 551~BC 479>

- 재능이 다하면 형식이 시작된다.

<막스 리베르만, 「 」, 1847~1935>

- 최상의 행복은, 1년의 끝에 가서 연초의 자기보다 좋아졌다고 느끼는 일이다.

<톨스토이, 「 」, 1828~1910>

- 미덕은 가장 고귀한 조상도 재신할 수 있다.

<데스투슈, 「본성의 힘」, 1656~1746>

- 높이 오르려 한다면 자신의 다리를 이용해야 한다.

<F.니체, 「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」, 1844~1900>

- 근본이 문란하고서 지엽이 잘 되는 법 없다.

<「대학」>

- 꿈을 때 꿈지 않으면 도리어 난을 받는다.

<사마천, 「사기」, BC 145~BC 86>

- 낚시질은 하여도, 그물은 치지 않는다.

<공자, 「논어」, BC 551~BC 479>

- 큰 나무 아래 아름다운 풀이 없다.

<유향, 「설원」, BC 77~ BC 6>

- 땅을 바꾸면 그제 그거다 .

<맹자, BC 372~BC 289>

- 문을 나서지 않고 천하를 안다.

<노자, BC 601~미상>

- 백락의 일고

<유방, 「전국책」, BC 79~ BC 8>

- 새가 없으니 활이 소용 없더라.

<사마천, 「사기」, BC 145~BC 86>

- 선은 오로지 다수를 쫓는다.

<좌구명, 「좌전」, BC 556~BC 452>

- 소리나기 전에 듣는다.

<「곡례」>

- 순도 사람, 나도 사람.

<맹자, BC 372~BC 289>

- 일장일이

<「예기」>

- 자색이 주색을 빼앗는다.

<공자, 「논어」, BC 551~BC 479>

- 중원의 사슴을 쫓다.

<위징, 580~643>

- 지혜로운 자는 싹트기 전에 안다.

<유방,「전국책」,BC 79~ BC 8>

- 지혜로운 자가 있어도 뒷일을 감당 못하더라.

<손자,BC 545~BC 470>

- 천리마 있어도 한 사람의 백락 없다.

<한유,「잡설」,768~824>

- 지친 말은 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.

<환관,「염철론」,미상~미상>

- 화는 천하의 달도이다.

<자사,「중용」,BC 492~ BC 431>

- 화로써 화에 이긴다.

<반고,「한서」,32~92>

-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.

<「구약」>

- 오로지 이를 볼 뿐.

<좌구명,「좌전」,BC 556~BC 452>

- 지나치다 보니 질투조차 하지 않는 사랑도 있다.

<라로슈푸코,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1613~1680>

- 약간의 즐거움이 모든 것을 더욱 감칠맛 나게 한다.

<발타자르그라시안,「지혜의 기술」,1601~1658>

- 행운에 의해 성공하고 당장 뒷받침을 하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망한다.

<니콜로 마키아벨리,1469~1527>

- 인간에게 일은 보배와 같다.

<이솝,「우화」,미상~미상>

- 사탄이 문을 두드리거든 일을 하시오.

<장파울,「가난한 변호사 지벤케스」,1763~1825>

- 청소년기는 남용과 무지일 뿐이다.

<비용,「유언시집」,1431~1463>

- 일이 기쁨의 아버지가 될 때가 있다.

<볼테르,「인간론」,1694~1778>

- 청은 남에서 나와 남색보다 푸르다.

<순자,BC 298~ BC 238>

- 목숨은 홍모보다 가볍다.

<사마천,BC 145~BC 86>

- 자, 다음 일에 착수하자.

<에디슨,1847~1931>

- 사람은 목석이 아니다.

<백거이, AD 772~AD 846>

- 조롱의 새

<소동파, 1037~1037>

- 강남의 굴, 화하여 탕자가 되다.

<유안, 「회남자」, BC 179~BC 122>

- 주인의 눈이 있어야 말이 살핀다.

<크세노폰, 「가정론」, BC 430~BC 355>

- 사내를 낳지 말고, 계집애를 낳아라.

<두보, 712~770>

- 하루를 따듯이 하고 열흘을 식힌다.

<맹자, BC 372~BC 289>

- 당신은 정부 없이 당신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다.

<세르반테스, 「돈키호테」, 1547~1616>

- 비례의 예

<맹자, BC 372~BC 289>

- 털을 뽑아 상처를 낸다.

<유협, 「유자신론」, 465~521>

- 나라는 망하였지만 산하는 있다.

<두보,712~770>